

남원 르네상스 리빙랩 정책포럼 개최

남원형 생활인구 확대 전략·지속 가능한 남원시 활력 제고 방안 논의

남원시는 11일 시청 강당에서 '남원 르네상스 리빙랩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정책 기조에 맞춘 남원형 생활인구 확대 전략과 지속 가능한 남원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리빙랩(Living Lab)은 시민·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해 지역 문제를 실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개방형 정책 실험 모델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은 남원시와 우석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최하고 우석대 RISE사업단·지역연계협력센터가 주관했으며, 유관 기관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생활인구 중심의 새로운 지역 활력 전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1부는 '5극 3특 시대 남원형 생활인구 확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주제로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기반 국가균형성장 전략 △초광역 발전전략을 통한 청년 정주 기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남원시는 11일 시청 강당에서 '남원 르네상스 리빙랩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정책 기조에 맞춘 남원형 생활인구 확대 전략과 지속 가능한 남원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홍미선 남원시 기획예산과장이 △남원시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주제로 국립기관 유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 등 남원의 미래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주민등록 인구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인·누리시민 등 체류인구까지 정책대상으로 확장하고, 지속적 관계 형성을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속 가능 남원 활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균형발전 정책의 변화, 초광역권 추진 방향, 5극 3특의 국가적 의미, 그리고 전북과 남원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후 한경구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사무처장을 좌장으로, 신창환 전북도 인구위기관장, 박찬용 한국지역콘텐츠진흥원 대표, 노계향 함께자치연구소장, 이마나 前 경복생활인구지원센터장, 박경현 센터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 전략과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스마트 경로당' 첨단 디지털 돌봄 거점으로 탈바꿈

남원시가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을 통해 관내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을 책임지는 첨단 디지털 돌봄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시는 지난 9일 '어르신 행복공간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완료보고회를 갖고, 관내 40개 스마트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과 읍면동장, 수행기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스마트경로당이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사업 추진에 따라 어르신들이 집 근처 경로당에서 손쉽게 건강관리, 여가 소통, 안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운영 면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고도화와 이용 편의성 극대화에 방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발효테마파크, '미리 크리스마스' 축제 개최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은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2025 순창 미리 크리스마스' 겨울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한발 먼저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분위기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된 체험 중심 축제다. 이번 축제는 어린이와 가족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

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

행사 기간 동안 △AR 증강현실 게임 '부들부들의 산타 찾기' △크리스마스 발효음식 만들기 쿠키 클래스(슈틀렌, 미니 케이크 등) △가죽이 함께 꾸미는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체험 등 오감을 자극하는 콘텐츠가 진행된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을 위해 도네이션 플리마켓도 열린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산타축제 완성도 높인다

60미터 길이 초대형눈썰매장 첫 등장·프로그램 대폭 강화

임실군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2025 임실 산타축제는 올해 더욱 확장된 놀이와 체험, 공연을 준비,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험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을 위한 아이돌 공연 개최에 더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가 있는 60미터 길이의 초대형눈썰매장을 처음으로 선보이며, 한층 완성도 높은 축제장을 마련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임실 산타축제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역대급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잠미원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이벤트 광장, 중앙분수대, 방문자센터 등으로 콘텐츠를 대폭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관람객 밀집을 완화했다.

방문자센터 주변에는 치즈 컬링을 비롯해 플로팅볼 눈 싸움장, 산타 썰매 체험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기는 체험 콘텐츠가 다채롭게 배치되고, 중앙분수대에는 인조 아이스링



크장을 설치해 겨울 감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산타퍼레이드는 축제 기간 매일 2회 운영된다. 25일 산타복장 선발대회와 27일 산타퍼레이드 경연대회 등의 이벤트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연 콘텐츠 역시 한층 풍성해졌다. 개막일인 25일에는 가수 이보람(씨야)의 축하 무대가 펼쳐지며, 27일에는 K-POP 걸그룹 라잇썸, 가수 짜이가 출연해 열기를 더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뮤지컬, 마술·버블쇼, 캐릭터 퍼포먼스, 오케스트라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된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시,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는 지난 10일 전주 시그니처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암 관리사업 평가대회(주최·주관 전북특별자치도·전북지역암센터 및 전북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서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아 우수사례 유공 분야 우수기관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북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기획·수행의 적절성, 발전 방안의 타당성, 차별성 및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암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우수기관 3곳을 선정했다.

남원시 보건소는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 실시하고, 타 사업과의 연계 및 자조모임 운영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2026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사업 선정

임실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하는 2026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와 경쟁

력 강화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LH는 이번 사업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7천5백만원을 투입해 문화예술프로그램과 문화기반시설 확충하고, 임실군은 지역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국가무형유산 임실팔팔농악보존회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한다.

/임실=진종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체육회 유공자 시상식 개최

남원시와 남원시 체육회는 지난 10일 컨벤션리조트 대연회장에서 한 해 동안 남원 체육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남원시체육회 유공자 시상식'을 성대히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체육유공자와 내빈 및 체육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 수상자는 △전북도지사상에 씨름협회(회장 황선주), 왕정동체육회(회장 박상연), 남원시체육회(팀장 임흥택), 거점스포츠클럽(지도자 안지운, 김도연)이 수상하였으며 △남원시장상에 산악연맹(회장 이문환), 유도협회(회장 윤순기), 남원시체육회(지도자 최의현), 장애인체육회(지도자 양재진, 김규선, 김용현, 김태홍) △국회의원상에 육상연맹(사무국장 강신근), 체력인증센터(처방사 유수혜), 자전거연맹(손주혜) 등 5명과 △남원시의회 의장상으로 배드민턴협회(회장 김충철), 체육협회(김은진), 여성체육위원회(한수인), 주짓수협회(이민현), 공공체육시설(이은주) 등 5명이 수상을 하였고, △남원시 체육회장상으로 전국체전을 비롯하여 도민체전 유공자 등 36명에게 시상, 특히 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와 지도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장애인 체육 활성화의 성과를 보여 주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청운면 이월재 씨 성금 200만원 기탁

청운면 두복마을에 거주하는 이월재 씨가 지난 10일 청운면 사무소를 찾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현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성금을 기탁한 이 씨는 수년간 백미, 현금 등 1천8백만 원 가량의 금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왔으며,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월재 씨는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을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바람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